

# 정보전달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 팩트폴니스를 중심으로

##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Information Delivery: Focused on Factfulness

김중두<sup>1</sup> Jong-Doo Kim(kjd@seowon.ac.kr) | ORCID: 0000-0002-4480-601X

<sup>1</sup>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t.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 ABSTRACT

이 연구는 팩트폴니스에서 제시한 13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들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설문지를 사용하는 양적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성인들은 글로벌 상식에 대해서는 중등학교 지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성인들의 학습을 통한 정보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양이나 지식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토론법의 적용을 통해 상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신이나 주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 동식물이나 예술작품들을 소재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was designed to find out how much common sense our adults have in their country through 13 questions presented by Factfulness. The method of this study consisted of quantitative research using questionnaire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ring about a shift in awareness of the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most adults live on secondary school knowledge when it comes to global common sense, and are less inclined to voluntarily upgrade their knowledge as adult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formation upgrade system through the study of the nation's adults. Fourth,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should operate as a program that brings about the expansion of common sens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Discussion Act from a program for the acquisition of culture or knowledge. Fif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d apply storytelling based on the subject of related animals, plants, and works of art.

주제어 : 팩트폴니스, 생활상식, 평생교육, 시민교육, 문해교육

Key words: Factfulness, Common sense of life, lifelong education, civil education, literacy educa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3D프린터, 인공지능, 우주개발, 사물인터넷, 스마트폰의 수많은 앱 등 최근에는 미래를 향상 용어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일상생활 용어로 사용되고 있거나 개인의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아마도 스마트폰이 아닐까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족, 친구, 연인, 주변 사람들로 좁혀진다. 또한 우리가 판단하고 생활하는 것은 내가 접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게 된다. 개인의 하루 24시간을 구분해 보면, 직장업무 8시간, 출퇴근에 2시간, 취침 평균 6-7시간, 식사시간 3시간을 잡으면, 4-5시간 정도의 교제시간을 가지게 된다.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리는 수시로 뉴스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론조사나 사회지표조사, 각종설문조사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이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견제시 행위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표현되거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각종조사에 대한 의견제시 행위는 자신의 판단에서는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자신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표현하고 선택하는 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 즉,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팩트풀니스(FactFulness)[1]는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게 되며, 그 후부터는 학습이 아닌 일을 하면서 기술을 익히게 됨으로 직업에서의 전문성은 향상되나 일반적인 상식은 과거의 학교생활에서 배웠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팩트풀니스에서 제시한 13문항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으로 판단한 결과는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회나 국가의 정책 방향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팩트풀니스에서 제시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위한 상식 검사지’ 13 문항에 대해 대학생과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일반상식과 평생교육

### 2.1. 일반상식

흔히 일반상식(general knowledge)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대화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날마다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뉴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대화의 주된 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토론이나 논쟁이 이어지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보의 정책결정을 위한 조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사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사표현의 행위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바르게도 하고, 잘못되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은 수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학습태도는 자신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결국 모두 국민에게 세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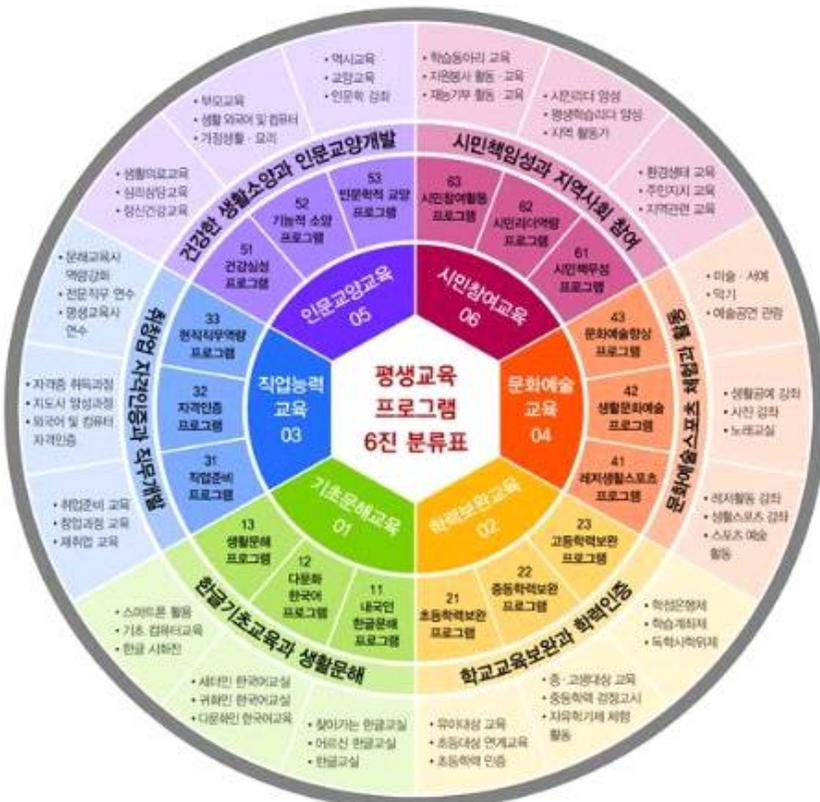
예를 들면, 최근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를 들 수 있다.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가 되고, 이는 정책결정권자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요구되는 것이 정확한 정보의 습득이다. 단순히 감성에 호소하여 수용하게 되면, 그 뒤에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문제(폭력, 도둑질 등)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 2.2. 평생교육

오늘날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만큼 평생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데는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평생교

육에서 추구하는 외적필요성은 첫째,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계속학습이 요구된다. 둘째, 기술혁신과 직업사회의 변화, 셋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넷째,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다섯째, 지식과 기술의 유효기간 단축 여섯째, 여가시간의 증대와 인간 수명 연장을 들고 있다. 내적필요성은 첫째,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둘째, 학교교육의 한계성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인간교육의 필요성 셋째, 학교교육의 경직성과 폐쇄성 보완 넷째, 평생에 걸친 개인의 교육권 보장 다섯째, 교육기회 확대 여섯째,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들고 있다[2][김종두, 2019]. 이렇듯 평생교육은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지식을 배우는가는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생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김진희[3]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6대 영역을 설정하고, 경로와 융합을 구조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 [그림 1]를 제시하였다[4].



[그림 1]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3][4]

첫째, 한 사람이 문명인으로서 배움을 시작하는 기초문해교육의 경로이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문자를 배우고 익히며 문명인으로 성장한다. 새싹의 초록 색감으로 상징화되며, 여기에는 한글 문해, 다문화 한국어, 생활 문해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는 학력보완교육의 경로이다. 한글을 깨우친 아동이 성장하면서 정규학교교육체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는 정규교과교육과 기능적 소양의 비교과교육에 대한 인증과 촉진이다. 노란색 학교버스의 색감으로 상징화되며, 여기에는 초등학력보완, 중등학력보완,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셋째,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이 직업세계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교육의 경로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성장한 사회구성원이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파란색 색감으로 상징화되며, 직업준비교육, 자격인증,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넷째,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풍요로운 삶과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경로이다. 사회구성원이 직장(일터)과 일상생활을 바쁘게 넘나들면서 누적된 지친 마음과 피로를 해소하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취미와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오렌지 빛 삶과 생활을 촉진하는 색감으로 상징화되며, 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다섯째, 모든 시민이 다양한 교양을 쌓고 소양을 개발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의 경로이다. 건강한 심성을 갈고 닦아 자신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기능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적 소양과 인문학적 교양을 확장시킨다. 자신만의 보라 빛 인생을 꿈꾸도록 촉진시키는 색감으로 상징화되며, 여기에는 건강심성, 기능 소양, 인문과학교양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여섯째, 사회구성원이 자신을 수신(修身)하고 가족을 제가(濟家)한 후에 치국(治國)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시민참여교육의 경로이다. 한 사람이 일정한 생애단계를 거치면서 어엿한 시민으로 성숙되어 국가, 지역사회, 타인을 위해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쏟아내 활동적 시민성을 촉진시킨다. 빨강의 색감으로 상징화되며, 시민책무성, 시민리더역량,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홍아정 외[5]의 연구에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교육데이터서비스 시스템(EDSS: Edu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통계자료에서 추출한 총 534,005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패턴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직업능력,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반면에 학력보완, 시민참여,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습득하여 의사소통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즉, 시민으로서의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충북 S 대학의 학생들과 방송통신대 학생,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19년 4월-2020년 6월에 걸쳐 전체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470부(남자 210명, 여자 260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학력과 연령에 따른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집

구분		고졸	전문대졸이상	전체(%)
연령별	20대	316(67.2%)	32( 6.8%)	348(74.0%)
	30-40대	20( 4.3%)	52(11.1%)	72(15.3%)
	50대	34( 7.2%)	16( 3.4%)	50(10.5%)
계		370(78.7%)	100(21.3%)	470(100%)

#### 3.2 사용도구

팩트폴니스에서 제시한 13문항을 토대로 ‘정확한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위한 상식 검사지’ 제목을 붙여 조사한 것이다.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문항 1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 나온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문항 2	세계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문항 3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문항 4	오늘날 세계의 기대수명은 몇 세일까요?
문항 5	오늘날 세계의 0-15세 아동은 20억이다. UN이 예상하는 2100년의 이 수치는 얼마일까요?
문항 6	UN이 2100년까지 세계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어떤 인구 층이 늘어날까요?
문항 7	지난 100년간 인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문항 8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다. 아래 중 70억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문항 9	오늘날 세계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 일까요?
문항 10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요?
문항 11	1996년 호랑이, 대왕판다, 검은 코뿔소가 모두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되었다. 이 셋 중 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멸종위기종이 되었을까요?
문항 12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 일까요?
문항 13	세계 기후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 3.3 자료처리

이 연구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별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다.

##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20%(50%)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38.9%), 60%(11.1%)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60%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인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 나온 인식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20%	190(40.6)	44(9.4)	174(37.2)	30( 6.4)	30( 6.4)	234(50.0)
40%	150(32.1)	32(6.8)	144(30.8)	24( 5.1)	14( 3.0)	182(38.9)
60%	28( 6.0)	24(5.1)	28( 6.0)	18( 3.8)	6( 1.3)	52(11.1)
합계	368(78.6)	100(21.4)	346(73.9)	72(15.4)	50(10.7)	468(100)

다음으로 세계인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저소득국가(57%)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소득국가(39.6%), 고소득국가(3.4%)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중간소득국가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세계인의 소득에 맞는 국가정보에 대한 지식은 40%정도만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세계인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에 대한 인식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저소득국가	200(42.6)	68(14.5)	190(40.4)	50(10.6)	28( 6.0)	268(57.0)
중간소득국가	154(32.8)	32(6.8)	142(30.2)	22( 4.7)	22( 4.7)	186(39.6)
고소득국가	16( 3.4)	-	16( 3.4)	-	-	16( 3.4)
합계	370(78.7)	100(21.3)	348(74.0)	72(15.3)	50(10.6)	470(100)

다음으로 지난 20년간 세계 극빈층 비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2배 증가(48.9%)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일(37.3%), 절반감소(13.7%)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절반감소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세계의 극빈층 감소에 맞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지식은 14%정도만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지난 20년간 세계 극빈층 비율에 대한 인식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2배 증가	172(36.9)	56(12.0)	162(34.8)	46( 9.9)	20( 4.3)	228(48.9)
동일	142(30.5)	32(6.9)	142(30.5)	12( 2.6)	20( 4.3)	174(37.3)
절반감소	52(11.2)	12(2.6)	40( 8.6)	14( 3.0)	10( 2.1)	64(13.7)
합계	366(78.5)	100(21.5)	344(73.8)	72(15.5)	50(10.7)	466(100)

다음으로 세계의 기대수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70세(8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0세(17%), 50세(2.6%)의 순이었다. 이 문항에서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70세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세계의 평균 기대수명에 대한 인식은 70세로 실제에 가장 근접한 정보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높은 기대수명에 대한 정답률은 응답자들이 실제 부모나 이웃 등에서 실질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을 보고 있는 체험학습의 결과로 이해된다.

<표 6> 세계의 기대수명 인식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50세	10( 2.1)	2( 0.4)	12( 2.1)	-	-	12( 2.6)
60세	56(11.9)	24( 5.1)	50(10.6)	14( 3.0)	16( 3.4)	80(17.0)
70세	304(64.7)	74(15.7)	286(60.9)	58(12.3)	34( 7.2)	378(80.4)
합계	370(78.7)	100(21.3)	346(73.9)	72(15.4)	50(10.7)	470(100)

다음으로 현재 0-15세 아동이 20억에서 2100년에 예측아동의 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20억(55.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억(33.3%), 40억(11.5%)의 순이었다. 이 문항에서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20억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2100년 아동 수의 예측정보에 대한 지식은 55%가 UN의 인구증가 예측 정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현재 0-15세 아동 20억에서 2100년에 예측 아동인구 수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40억	30( 6.4)	24(5.1)	38( 8.1)	12( 2.6)	4( 0.9)	54(11.5)
30억	146(31.2)	10(2.1)	132(28.2)	14( 3.0)	10( 2.1)	156(33.3)
20억	194(41.5)	64(13.7)	178(38.0)	46( 9.8)	34( 7.3)	258(55.1)
합계	370(79.1)	98(20.9)	348(74.4)	72(15.4)	48(10.3)	468(100)

다음으로 UN의 2100년까지 40억 인구증가 예측 중 주된 인구증가 연령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노년인구(75세 이상)(88%)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인인구(15-74세)와 아동인구(15세 미만)(6.0%)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성인인구(15-74세)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세계 인구증가 예측에 대한 정보는 6%정도만이 UN의 예측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낮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8〉 UN의 2100년까지 40억 인구 증가 예측 중 주된 인구증가 연령대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15세 미만	20( 4.3)	8(1.7)	22( 4.7)	4( 0.9)	2( 0.4)	28( 6.0)
15-74세	22( 4.7)	6(1.3)	20( 4.3)	4( 0.9)	4( 0.9)	28( 6.0)
75세 이상	326(69.7)	86(18.4)	304(65.0)	64(13.7)	44( 9.4)	412(88.0)
합계	368(78.6)	100(21.4)	346(73.9)	72(15.4)	50(10.7)	468(100)

다음으로 지난 100년간 자연재해 사망자수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2배 증가(47.7%)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절반감소(28.9%), 거의 비슷함(23.4%)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절반감소였다. 부연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재해 예측으로 인한 대피와 댐건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예측정보는 오히려 2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재난재해에 대한 뉴스 시청의 결과로 보인다. 매스컴의 특성상 재난이나 재해는 많이 다루고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은 잘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상식을 습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연하면, 학습을 통한 상식습득보다는 뉴스 등 매체를 통한 상식습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지난 100년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의 변화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2배 증가	170(36.2)	54(11.5)	146(31.1)	44(9.4)	34( 7.2)	224(47.7)
거의 비슷	90(19.1)	20( 4.3)	86(18.3)	14(3.0)	10( 2.1)	110(23.4)
절반 감소	110(23.4)	26( 5.5)	116(24.7)	14(3.0)	6( 1.3)	136(28.9)
합계	370(78.7)	100(21.3)	348(74.0)	72(15.3)	50(10.6)	470(100)

다음으로 오늘날 세계인구 약 70억의 분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②번(37.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③번(32.5%), ①번(29.9%)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①번이었다. 부연하면,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의 인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구분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사회를 추구하는 오늘날 세계적 흐름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10> 오늘날 세계인구 약 70억의 분포에 대한 인식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①	106(22.6)	34(7.3)	104(22.2)	22( 4.7)	14( 3.0)	140(29.9)
②	142(30.3)	34(7.3)	122(26.1)	30( 6.4)	24( 5.1)	176(37.6)
③	120(25.6)	32(6.8)	120(25.6)	20( 4.3)	12( 2.6)	152(32.5)
합계	368(78.6)	100(21.4)	346(73.9)	72(15.4)	50(10.7)	468(100)

- 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10억, 유럽 10억, 아프리카 10억 아시아 40억
- ②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10억, 유럽 10억, 아프리카 20억 아시아 30억
- ③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20억, 유럽 10억, 아프리카 10억 아시아 30억

다음으로 세계의 1세 아동 중 어떤 형태로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50%(44.9%)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38.9%), 80%(16.2%)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80%였다. 부연하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체제와 저비용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유네스코를 통한 의료봉사 및 지원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은 아직도 후진국의 아동들은 예방접종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겨우 16.2%만이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상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연하면, 과거의 중등학교시기에 습득한 지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1> 세계 1세 아동 중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에 대한 인식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20%	140(29.9)	42(9.0)	134(28.6)	32( 6.8)	16( 3.4)	182(38.9)
50%	174(37.2)	36(7.7)	166(35.5)	18( 3.8)	26( 5.6)	210(44.9)
80%	54(11.5)	22(4.7)	46( 9.8)	22( 4.7)	8( 1.7)	76(16.2)
합계	368(78.6)	100(21.4)	346(73.9)	72(15.4)	50(10.7)	468(100)

다음으로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 재학, 여성은 평균 몇 년 재학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6년 재학(65.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9년 재학(22.2%), 3년 재학(12.4%)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9년 재학이다. 부연하면, 세계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여성들에게도 교육에 대한 기회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아직도 22.2% 정도만 이러한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12>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 재학, 여성은 평균 몇 년 재학?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9년	84(17.9)	20( 4.3)	76(16.2)	16( 3.4)	12( 2.6)	104(22.2)
6년	244(52.1)	62(13.2)	238(50.9)	40( 8.5)	28( 6.0)	306(65.4)
3년	40( 8.5)	18( 3.8)	32( 6.8)	16( 3.4)	10( 2.1)	58(12.4)
합계	368(78.6)	100(21.4)	346(73.9)	72(15.4)	50(10.7)	468(100)

다음으로 1996년 호랑이, 대왕판다, 검은 코뿔소 멸종 위기종 지정에서 20년 후의 현재 더 감소된 종 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2종(58.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종(36.8%), 없다(4.7%)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없다’이었다. 부연하면, 해당 동물들이 주로 사는 국가와 환경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4.7%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동물병원, 애완견보호소, 애견호텔 등 동물사랑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멸종위기 동물의 변화에 대한 정보에 대해 어둡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물사랑에 대한 관심의 폭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13> 1996년 호랑이, 대왕판다, 검은 코뿔소 멸종 위기종 지정에서 더 위급한 종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2종	220(47.0)	54(11.5)	200(42.7)	44( 9.4)	30( 6.4)	274(58.5)
1종	134(28.6)	38( 8.1)	140(29.9)	16( 3.4)	16( 3.4)	172(36.8)
없다	14( 3.0)	8( 1.7)	8( 1.7)	10( 2.1)	4( 0.9)	22( 4.7)
합계	368(78.6)	100(21.4)	346(74.4)	70(15.0)	50(10.7)	468(100)

다음으로 세계인구 중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50%(54.7%)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80%(30.3%), 20%(15.0%)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80%였다. 부연하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국가에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전기 공급이 80%수준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은 30% 정도만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4> 세계인구 중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에 대한 인식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20%	50(10.7)	20(4.3)	50(10.7)	10( 2.1)	10( 2.1)	70(15.0)
50%	218(46.6)	38(8.1)	192(41.0)	38( 8.1)	26( 5.6)	256(54.7)
80%	100(21.4)	42(9.0)	104(22.2)	24( 5.1)	14( 3.0)	142(30.3)
합계	368(78.6)	100(21.4)	346(73.9)	72(15.4)	50(10.7)	468(100)

마지막으로 기후전문가들의 미래 100년 동안의 평균기온 변화 예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5>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서 보면, ‘더 더워질 것으로 예측한다.’ (89.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더 추워질 것으로 예측한다.’ (6.8%), ‘그대로일 거라고 예측한다.’ (3.8%)의 순이었다. 이 문항에서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더 더워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었다. 부연하면, 공장매연, 자동차, 사무실과 가정의 냉난방 등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식은 90% 정도로 기후전문가들의 예측 정보와 맞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에서 여름의 무더위나 겨울의 따듯한 기온 등 실생활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연하면, 개인이 접하는 마스크의 정보와 더불어 계절마다 겪게 되는 체험적 지식으로 습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기후전문가들의 미래 100년 동안의 평균기온 변화 예측 ( ) 안은 %

변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대	3-40대	50대	전체
①	330(70.2)	90(19.1)	306(65.1)	68(14.5)	46( 9.8)	420(89.4)
②	14( 3.0)	4( 0.9)	16( 3.4)	2( 0.4)	-	18( 3.8)
③	26( 5.5)	6( 1.3)	26( 5.5)	2( 0.4)	4( 0.9)	32( 6.8)
합계	368(78.6)	100(21.4)	348(74.0)	72(15.3)	50(10.6)	470(100)

- ① 더 더워질 것으로 예측한다.  
 ② 그대로일 거라고 예측한다.  
 ③ 더 추워질 거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은 UN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정보와는 매우 다른 정보를 가지고 현실생활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이 중등학교 재학시절에 배운 정보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바른 정보습득을 통해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V.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팩트폴니스에서 제시한 13문항을 토대로 동일한 문항으로 2019-2020년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평생교육이 강조하여 왔던 실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즉, 실용교육이 현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 측면의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읽는 상식습득에 대한 실질 정보제공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식이나 실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가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글로벌 상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습득했던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된다. 따라서 변화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면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학교교육보다는 개인이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상식과 글로벌 교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UNESCO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예측정보와 우리나라 성인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정보의 일치가 50%를 넘는 정보는 13문항 중 3개 항목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이 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등학교 재학시절의 정보가 거의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글로벌 상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성인들이 전문가들의 예측과 동일한 인식을 보인 결과는 미래 100년 동안의 기후 예측으로 이는 실제 생활에서 스스로 느끼는 더위와 뉴스와 같은 정보전달에서 습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과 거리가 먼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부적절한 예측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의식이나 타인의 주장에 따른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정보가 없이 타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성인들의 글로벌 상식에 대한 매우 낮은 정보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세계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 나온 비율, 지난 20년간 세계 극빈층 비율 감소, 2100년까지의 인구증가 연령대 예측, 세계 1세 아동의 예방접종 비율 등의 정보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인문교양 과정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상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수준과 더불어서 국가의 위상에 맞는 국민들의 상식과 정보습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센터(관, 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과도한 성과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기관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성과평가는 해당기관의 직원들을 성과위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생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배움에 대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 Ⅵ. 결론

이 연구는 팩트폴니스에서 제시한 13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들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설문지를 사용하는 양적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동안 평생교육은 지속적으로 체계화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계성이 강화될수록 경직성이 강화되어 누구나 쉽게 접하고,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성인들은 글로벌 상식에 대해서는 중등학교 지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경향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3개 질문 중에서 실제 정보와 50%이상 일치하고 있는 항목은 3개 문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 성인들의 학습을 통한 정보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신문을 보는 비율은 70%이며, 그 중 일반신문은 34.5%, 인터넷 신문은 89.5%를 보이고 있으며, 책은 1년에 17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인구는 54.9%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교양서적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나 이런 수치는 신문과 만화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 교양도서를 읽는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교양도서만으로 상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하는 마음가짐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양이나 지식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토론법의 적용을 통해 상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들은 그동안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 풍부하므로 수동적으로 듣는 강사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표현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강조되는 하브루타 교수법은 그동안 수동적 학습에 익숙한 성인들에게 매우 신선한 교수법으로 권장될 수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신이나 주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 동식물이나 예술작품들을 소재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평생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개인에 대한 초점보다는 평생교육의 성과를 홍보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그로 인해 지속적이지 못하고, 한 때의 유행으로 지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다. 이는 그 속에 주인공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인들도 어릴 적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자신이 학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한스 로슬링 · 올라 로슬링 · 안나 로슬링 뮌든 저, 이창신 역(2019). 팩트폴니스. 김영사.
[2]	김종두(2019).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pp.323-324.
[3]	김진화 · 고영화 · 권재현 · 정민주(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연구. 평생교육연구, Vol. 16, No. 3, pp.211-236.
[4]	김진화(2017).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대 영역, 현황과 과제. <a href="http://www.wasuwon.net/">http://www.wasuwon.net/</a> 122618
[5]	홍아정 · 이지훈 · 박규미, (2016).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지형 분석: 2011-2015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Vol. 54, No. 3, pp.249-281.
[6]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 통계청. p.27.